

卷

頭

言

理事長 吳 琳 根

1974年을 보내면서 本誌 第3號를 내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本協會로서는 寧日없는 1年이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안으로는 內實을 期하고 밖으로는 誠實한 奉仕를 함으로써 火災 없는 社會를 이룩하기 위해 本協會 任職員 一同은 渾然一體가 되어 맡은 任務를 다하고자 온갖 努力을 傾注해 왔다.

그러나 올해에도 큰 火災가 發生하여 貴重한 人命과 財産의 被害가 莫甚했었다는 事實에 대해 防火機關인 本協會로서도 一抹의 責任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本協會는 지난 한 해 동안 1次年度에서 닦아 온 基礎를 土臺로 不斷한 研究와 責任있는 點檢, 誠實한 奉仕라는 目標 아래 業務를 推進해 왔으며, 國民들로부터 信賴받는 機關이 되도록 最善을 다해 努力해 왔다. 協會의 創立이 아직 日淺한 데서 業務가 무엇이 며 設立目的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認識하지 못한 一部 建物主들도 있어 業務遂行에 支障도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屈하지 않는 勇氣와 覺悟, 그리고 우리들의 業務遂行이 곧 福祉社會建設의 밑거름이 된다는 自負心이, 우리가 여러 가지 難關을 克服해 오는 데 강한 活力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本協會는 지난 7月 科學的이고도 合理的인 點檢業務를 遂行키 위해 技術研究室의 新設等 一部機構를 改革했고, 協會業務開始日인 1973年 7月 2日부터 今年 7月 31日까지 點檢을 完了한 特殊建物 6,182件에 대한 結果分析을 마치고 이를 土臺로 關係行政機關에 防火施設의 改善에 必要한 措置를 取해 줄 것을 建議한 바 있다.

分析한 結果를 보고 우리는 全體 特殊建物이 너무도 많은 火災要因들을 안고 있으며, 點檢指摘事項을 하루 속히 改·補修하지 않는 限 큰 災殃을 언제라도 當할 수 있는 危險을 內包하고 있다는 結論을 얻게 되었으며, 따라서 協會의 任務가 얼마나 重大한가를 다시 한 번 느끼고, 또 앞날을 設計하면서 이 해를 보내는 것이다.

새해에는 더욱 效果的인 弘報啓蒙活動을 展開하여 國民들에게 防火思想을 普及시키는 데 努力을 해야 하겠고, 海外의 防災機關과도 幅 넓은 情報를 交換하여 弘報함으로써 온 國民의 마음을 좀더 火災豫防에 密着시켜야 하겠다.

한편 새로운 點檢規定의 制定은 勿論, 點檢器機의 補強, 點檢要員의 資質向上에도 力點을 두어 點檢의 能率化를 期하는 등 防災에 대한 幅 넓은 活動과 우리의 技術向上으로 새해의 業績에 期待를 걸어 보는 것이다.